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⑤:40 갈데까지 가보자 50 이예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광장	00 튠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브라질 월드컵 특집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브라질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국토교통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4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 : 신시내티)	30 KBC 모닝와이드
⑧ 15 국토교통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⑩ 10 팩트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튠 생활체조(재)	50 지구촌 뉴스		30 브라질 2014 특집 SBS 뉴스
⑪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재)	00 월드컵 특집 SBS 12 뉴스 30 더터 365 35 화합기행
① 30 뉴스 특급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20 월드컵 스페셜 Again! 2002	35 한국의 맛(재)
② 40 직언직실	00 엄마의 탄생(재)	00 KBS 뉴스타임 10 일일드라마 (빠꾸기 동지)(재)		00 월드컵 특집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③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마스크 마스터즈(재) 55 TV 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10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④ 50 박종진의 캐도너마	00 시사선단 55 튠 생활체조	25 코파 반정의 동화 수사대 50 버터비(재)	00 보글 쿡 원정대 30 신동방송 호기심 탐험대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30 우리기 탐구생활
⑤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브라질 월드컵 특집 MBC 이브닝 뉴스	00 월드컵 특집 SBS 뉴스 55 KBC 저녁뉴스 15 내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더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빠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⑧ 10 집 나간 가족(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투나잇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월드컵 특집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20 특집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5 밥상의 신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피노라마 50 시사현장 맥	00 수목 드라마 (골든 크로스)	0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⑪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브라질 월드컵 특집 아이돌 풋살 월드컵	15 자기야
⑫ 30 카툰쇼 S(재) ①:40 관찰카메라 24시간	30 인문강단 라(재) ①:1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현철의 울맞ுவ적	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로드 투 브라질 (조별 전력분석)	①:05 우리기력 우리문화 스페셜	35 월드컵 특집 나이트 라인 50 KBC 특선다큐시리즈 ①:40 피우자 만들레



월드컵 열기 방송사도 '후끈'

공중파 3사 중계방송·예능 등 경쟁 치열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청자들을 잡기 위한 방송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예도 분위기 속에서 월드컵 열기를 띄우려는 것을 자제했던 지상파 방송 3사는 뒤늦게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월드컵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행사에다 광고 시장도 막대해 방송사들이 경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8년 만의 공동 중계·마이크업은 '2002 월드컵' 주역들이 이번 중계방송에 임하는 방송사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SBS가 단독 중계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MBC와 KBS에서 "8년 만에 기회가 왔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상파 3사는 화려한 중계진 구성을 위해 2002 한·일 월드컵 주역들을 일찌감치 섭외했다.

SBS는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통해 검증받은 '관록'의 해설위원 차범근과 캐스터 배성재 콤비를 다시 내세웠다. 또 한국 축구계의 '아이콘'인 박지성까지 최근 방송위원으로 영입, 우리 대표팀 경기 등 주요 경기의 전방과 분석을 국내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다.

SBS 아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MBC와 KBS는 중계진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MBC는 안정환·송중국·김성주 등 3명으로 두터운 중계진을 짰다. TV에서 예능감까지 선보인 두 선수에 2002·2006 월드컵 중계를 맡았고 탄탄한 진행 실력을 자랑하는 김성주까지 더해 전문성과 안정감, 인기 모두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KBS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현역으로 뛰 이영표와 김남일이 마이크를 함께 잡는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때 활약한 조우중이나윤서가 캐스터로 함께 기용됐다.

방송사들은 중계 기술 면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SBS는 최대 23대 카메라를 통해 TV 중계로는 볼 수 없었던 현장 화면을 제공하는 '멀티앵글 서비스'를 시작했고, KBS도 '멀티앵글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인다.

◇예능·교양까지 총동원=지상파 3사는 중계방송 준비뿐 아니라 인기 예능·교양 프로그램까지 동원, 월드컵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중계진 띄우기다. 차범근과 박지성은 지난 8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월드컵 특집편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차범근을 다룬 다큐 '두리아빠, 축구바보 그리고 전설, 차범근'도 같은 날 방송됐다.

MBC 중계진은 MBC '일밤' 코너 '아빠 어디가'에 함께 출연하면서 대중적 친근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방송되는 다큐 '어게인 2002'에서 한일 월드컵 비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큐 '공은 사람보다 빠르다'를 통해서도 세계 축구 전설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전할 예정이다.

KBS도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제능'의 아이템을 축구로 정하고 이영표·조우중을 새 단원으로 합류시켰다. 이영표·조우중은 축구계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따봉 월드컵'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SBS '힐링캠프', MBC '무한도전' 등 각사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이 브라질 현지 열기를 전하는 특집들을 준비하고 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00 머물다사	17:45 두더지공
05:40 장수의 비결(재)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특집! 보나하니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리얼토크 부부	14:45 곤	19:00 리얼체험 명
07:00 곤(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15 마사와 곤	19:50 달라정어유(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대양이 떠오르는 땅, 터키>(재)	15:30 꼬마거북 프랑클린	20:40 다류오늘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영 유치원	12:10 연중기획	16:00 덩동영 유치원	〈브라질〉
08:20 책과 땅(재)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30 한국기행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역사채널e	16:30 책갈피 요정 또보	〈추자군도〉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10 사이틴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9:05 책갈피 요정 또보(재)	13:20 풀꽃!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미술탐험대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23:35 장수의 비밀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24:05 EBS 스페셜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0:50 2013 포스
00:50 "	(국어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02:30 "	(수학 II)	12:10 5분 과학·지구과학 1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4:10 "	(과학)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5:00 "	〈한국사(하)>(재)	14:00 " (국어 B형)
05:50 2013 포스	14:50 "	〈영어 A형〉
	〈미적분과 통계 기본〉	15:40 " (국어 3④)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6:30 " (한국지리)
07:30 2014 포스	〈문학 II〉	17:20 " (사회문화)
08:20 올림포스	18:10 "	〈경제〉
	〈영어독해 기본 II>(재)	19:00 " (윤리와 사상)
09:10 "	(수학 II)(재)	19:50 5분 과학·지구과학 I (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3-1〉
07:30 실용과외 비법 노트		16:20 "	〈과학 4-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6:50 "	〈과학 5-1〉
08:30 한자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1>(재)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09:50 "	(영어 1)	17:50 스쿨랜드(재)	
10:30 "	(도덕 2)	18:00 TV 중학 (역사(하))	
11:10 "	(국어 3④)	18:40 " (사회 3)	
11:50 "	(영어 2)	19:20 등업스공 (역사(하))	
12:30 등업스공	(사회 1)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3:10 "	(역사 1)	20:40 " (영어)	
13:50 "	(역사 2)	21:20 " (과학)	
14:30 "	(사회 2)	22:00 "	
15:20 초등 기말성취도평가 대비특강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5월 15일 甲寅)

<p>子 36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48년생 완전히 회복하게 되리라. 60년생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72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 84년생 폭격을 높이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6, 76</p>	<p>午 42년생 황량한 대지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54년생 말한 바는 지켜야 하느니라. 66년생 기다가 잡히면서 정리 단계로 들어갈게 된다. 78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53</p>
<p>丑 37년생 상호적이라야만 의미가 있다. 49년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좋다. 61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73년생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하자. 85년생 크게 한숨쉬 일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5, 44</p>	<p>未 43년생 작심 했다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5년생 대중 넘어가서는 절대로 아니 될 문제니라. 67년생 이익 앞에서 참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 79년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66, 38</p>
<p>寅 38년생 여과해서 듣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면 그만이다. 50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62년생 기대했던 바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 74년생 지근지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02, 69</p>	<p>申 44년생 어설피게 하느니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56년생 성성을 다 해왔다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8년생 본바탕의 한계 때문에 회의를 느낄 수다. 80년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리라. 행운의 숫자 : 78, 81</p>
<p>卯 39년생 막간을 이용한 것이 짝떨어졌다. 51년생 쇠귀에 경 읽기라 할 수 있으니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속이더러 편할 것이다. 63년생 편차가 심할 것이다. 75년생 첫 단추를 잘 꿴 것이 아주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7, 06</p>	<p>酉 45년생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운은 발전적이고 세차도다. 57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9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수가 있다. 81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 하리라. 행운의 숫자 : 84, 48</p>
<p>辰 40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 52년생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64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76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2, 24</p>	<p>戌 46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58년생 열려할 정도는 아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오른다면 고지에 도달하게 되리라. 82년생 양자 사이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92, 89</p>
<p>巳 41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53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65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77년생 다양하게 구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0, 19</p>	<p>亥 47년생 허무맹랑하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실망하지 않으리라. 59년생 거친 풍랑 위의 일엽편주에 비유할 만하다. 71년생 진분과 신용도는 별개임을 알자. 83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4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하이힐 신은 강력계 형사

영화·드라마 등 종합무진

“영화에서는 적어도 새롭고 신선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연기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커졌던 걸까?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차승원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영화를 찍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재현 감독의 '포화속으로'(2010) 이후 드라마에는 간간히 출연했으나 영화 복귀는 오랜만이다. 장진 감독의 '하이힐'에서 그는 전설의 무술 실력을 지닌 형사 지옥 역을 맡았다.

사실 '하이힐'은 그에게 두 가지 도전이었다. 누아르 장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성전환자를 꿈꾸는 형사 역할도 처음이었다. 장르도, 역할도 새로웠던 셈이다. 그는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익숙한 길로 가는 듯 연기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 게 싫어졌었다”고 했다.

장르도 역할도 새로웠기에 약간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그런 역할을 한 이가 장진 감독이다. 그는 장 감독과 '박수칠 때 떠나라'(2005), '아들'(2007)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췄다.

“친한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건 더 불편해요. 제가 가진 별칭 아닌 무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어요. '익숙하고 그냥 답습하는 행동은 서로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죠. 그동안의 작품에선 현장에서 서로 대화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영화에선 말도 잘 안 했어요. 그런 태도가 끝까지 가니까 약간 덜컹덜컹거린 듯했죠. 그래도 기본 좋은 텐션(긴장)이었다고 할까요?”

그가 연기한 지옥은 자기 안에 숨은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고자 과도하게 남자다움에 매몰된 인물이다. 육체를 단련해야 했고, 다른 형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아드레날린을 분출해야 했다. 그래서 영화 안에는 다양한 액션 장면이 등장한다.

롭살롱에서 보여주는 현란한 주먹 다름, 장미(이승)를 구하고자 조직폭력배 2인자 하근(오정세)을 만나러 가면서 벌이는 쌍칼 액션,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채 비 한 방울 맞지 않으며 적을 격멸하는 장면 등 수컷 냄새 진하게 나는 우아스런 장면들이 이어진다.

“합들었죠.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에선 저와 연습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합이 절묘하게 맞아야 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술이나 물이 있는 테이블 위에서 싸우면 미끄럽죠. 조금만 잘못해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험한 장면이 많아 부름이 돌아가고 팔목도 빼였어요. 제 주정에 최소 전치 8주 정도는 다친 거 같아요. 아니다 1년인가?(웃음)”

그는 성소수자 역할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표현해야 했다면 부담스러웠겠지만 어떤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며 “만약 부담을 느꼈다면 오히려 연기에 방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차승원은 꽤 오랫동안 쉬었다.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2010)과 '최고의 사랑'(2011)으로 큰 주목을 받은 이후 연극 한편을 제외하면 연기 분야에선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쉬 없이 연기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 마음을 반영한 듯, '하이힐' 개봉을 앞두고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를 촬영 중이다.

“드라마는 시작해놓고 얼마든지 캐릭터를 변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예요. 영화 캐릭터는 고정돼 있지만, 드라마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는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北野武)처럼 연기도 하고, 예능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를 꿈꾼다. “예능에 출연하면 진지하지 못한 배우라는 건 일종의 편견”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다만, 배우로서의 연기관은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뉴스